

지역 소식통

고창 영산기맥 생태축 복원 사업 마무리 공사 박차

고창군 영산기맥(솔재) 생태계 복원사업이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영산기맥 생태계 복원사업'은 고창읍 일산리(영산기맥 솔재) 일원에 로드킬 방지를 위한 동물 이동 통로와 단절된 식물의 생물환경 개선을 위해 길이 70m, 폭 30m의 터널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실시계획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사업을 본격 착공해 현재 구조물공사와 현장관리 시공 등을 추진중이다. 10월부터는 도로공사(노면개선 등), 조경공사(교목, 관목류 식재 등) 국립생태원(자문)을 진행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태축 복원사업이 준공되면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로 식물 다양성 증진과 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2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1일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2022년 제2회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장은 올해 상반기 부안군 군농육성재단의 기탁금으로, 기관·단체 및 개인이 기부한 정액기금 2만8,781건에 3억8,900여만원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이만수 사진작가의 청자제작과 정 및 부안군의 우수한 경관을 찍은 사진 원본파일 55점에 접수하기로 의결했다.

부안군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은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 및 자연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갯벌축제' 5일 개막

심원면 만들어촌체험마을 일원서 다채로운 행사 마련

진흙이 잔뜩 묻어도 상관없는 헌 옷과 장화, 맛소금을 들고 바다로 향한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갯벌에 조심조심 들어가 구멍이 숭숭한 곳에 맛소금을 뿌려주면 조개가 빠끔히 고개를 내민다. 모두 캐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면에 잔뜩 넣어 먹으면 천국의 맛이 따로 없다.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열리는 2022 고창갯벌축제가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고창의 갯벌은 지난해 여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천혜의 환경을 가진 관람번지다.

고창갯벌축제위원회(위원장 김충)는 가치 있는 고창의 갯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갯벌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에선 갯벌로 들어가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끼미

끼 풍천장어 잡기',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양생태교육 이동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먹거리 부분에서는 김부각, 동죽해물라면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와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하고 현장구매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 캠페인과 연계하여 염생식물 관찰 바다 보석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 생태인제인과 함께하는 갯벌 현장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김충 고창갯벌축제위원장은 "고창갯벌축제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시장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 행정규칙, 관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민원인 불편 없도록 만전을"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강조'

이학수 시장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 행정규칙, 관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1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면 자칫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7월 인사이동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전 공직자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가철과 정기인사, 추석 명절 등 업무 공백 요인이 연달아 이어짐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와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도 요청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휴가와 인사이동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복무 기강 해이 행동경정 위반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연차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잠시 삶을 되돌아보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자유롭고 유연한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하라"며 "복귀 후 육체적·정서적으로 충전된 에너지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의 옥정호 수역 상생협약 이행" 촉구

정읍시민단체, 시장실 항의 방문

정읍시민단체가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단체는 7월 28일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임실군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임실군에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0일 한 방송을 통해 밝힌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관련해 심 군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읍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면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5년(5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서명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 제4항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면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토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16년에도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배 띄움) 조성을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

풀이하는 것은 옥정호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상생 협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생명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놀이를 하는 것은 정읍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 선언서를 위반한 임실군의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심 군수가 같은 방송에서 "옥정호를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읍시가 상수원 급수 체계를 변경하여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갯벌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고창군이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가 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창군 핵심사업을 비롯해 아직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안에 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320억원) 유치를 위해 현재 등재된 충남(서천, 전북(고창), 전남(신안, 보성, 순천)을 비롯해 2025년 등재 계획인

강화, 영종도 등 9개 지역을 감안 하더라도 중간지점인 고창군이 효율적 관리의 최적지다.

또 충남과 전남에 비해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한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 고창에 유치돼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밖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 식생조립사업(150억원)과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290억원), 가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388억원) 등 농림해양분야의 사업과 함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명시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60억원) 및 최첨단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200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42억원)을 비롯하여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98억원) 등 철저한 물 관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코로나 대응 방역 생활화 당부

정읍시(시장 이학수)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일일 100여 명을 전후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학수 시장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감염 위험도 커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패대로 등 규제에 의한 방역 조치가 아닌,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방역 조치다.

이 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생활 방역 실천을 위한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일일 3회 이상 자주 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예방접종 끝까지 맞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다.

특히, 이 시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체 또는 취식 시간 최소화를 권고했다.

또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비말 확산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환기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